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Since 1929.5.1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사무실) 717-2605(담임 목사실) /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산상변화주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비 전 ……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55. 하나님의 크신 사랑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십시오. 온갖 욕심으로 어두워졌던 우리 마음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있습니다. 주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만을 행하려고 우리를 치장했던 모든 허식을 버리고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생의 시련 때문에 아파하고, 때로는 눈앞에 놓인 달콤한 가짜 행복에 마음이 팔리는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해주십시오.

세상을 향하던 우리 눈길을 거두어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지혜의 고요함 속에서 쉬게 해주십시오.
떨림과 기쁨으로 마음을 여미고 주님을 따라 나서게 해주십시오.
평범한 것들 속에 묻혀 있는 보물을 찾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분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고후4:6 …… 인도자

♠ 교 독 문 …… 51. 히브리서 11 장 …… 다함께

♠ 영 광 송 ……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대표기도 …… Ⅰ. 염혜영 선생 Ⅱ. 조병무 장로

사도신경 …… 다함께

응 답 송 …… 성가대

찬 송 …… 347. 겸손히 주를 섬길 때 …… 다함께

성경봉독 …… Ⅰ. 창9:8-17 …… 인도자
Ⅱ. 빌1:20-26 박홍재 권사

찬 양 …… 성가대

말 씀 …… **Ⅰ. 무지개** …… 김기석 목사
Ⅱ. 삶에는 은퇴가 없다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함께

헌신의 찬송 …… 455.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 박옥식 전도사 은퇴식 ♣

약력소개	……	조병무 장로
화환증정	……	말은이
축 사	……	윤정덕 장로
감사패증정	……	담임목사
예물증정	……	각 선교회장
답 사	……	박옥식 전도사
축하연주	……	이용한/오성희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인도자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에스겔 통독 강좌(18)	로마서 강해(69)
기도: 이동천 집사/조병주 권사(29일)	기도 : 윤미경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최인환 선생 한완식 장로	인도자 장재영 집사

2월	영접위원	한완식	김정길	백승민	유영남	최영혜	권미정
	헌금위원	김철수	박창운	김용진	임창선	곽혜자	김성자

▣ /믿/음/으/로/읽/는/글/

닦음의 예술

중국인과 희랍인이 어느 나라의 예술이 훌륭한가에 관하여 왕 앞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왕이 중간에 끼어 말했다.

"그 문제를 논쟁으로 해결해보자."

중국인이 먼저 입을 떼어 중국 예술의 훌륭함에 대하여 말했다. 그러나 희랍인은 입을 떼지 않고 자리를 떴다. 그러자 중국인이 제안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각자 방을 하나씩 차지하고 누가 예술적으로 방을 꾸미는지 알아보자고 하였다. 희랍인도 이에 동의했다.

이윽고 두 방을 마주보게 하고 가운데를 휘장으로 막았다. 중국인은 왕에게 백 가지 물감을 청하여 아침마다 와서 벽에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희랍인은 물감에 손을 대지 않았다.

"우리는 그런 것으로 일하지 않는다."

희랍인은 자기 방에 와서 벽을 닦아 광을 내기 시작했다. 날마다 닦고 닦아, 마침내 하늘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게 만들었다. 오색에서 무색으로 가는 길이 바로 거기 있다는 듯!

중국인은 먼저 작업을 마치고 무척 행복해했다. 완성의 기쁨에 취해 북을 울렸다. 왕이 그의 방에 들어와서는 현란한 색깔과 세밀함에 감탄했다.

그러자 희랍인이 휘장을 확 걷었다.

중국인이 그려놓은 온갖 형상이 그대로 희랍인이 닦고 또 닦아 광을 내놓은 벽에 비치는데, 빛에 따라 몸을 바꾸며 더욱 아름답게 살아났다. 왕은 눈이 휘둥그래지며 희랍인의 예술을 더 높이 치하했다.

12세기 페르시아의 시인 루미(Rumi)의 시 <중국 예술과 희랍 예술>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았다. 이 시는 매우 깊은 종교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몸 닦음>에 관해서 이처럼 명쾌한 그림을 보여주는 글은 처음이다. 딱딱한 교설이나 철학적 언술이 아닌 환한 그림으로 말이다.

일종의 그림 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림 속에 영성의 첫 걸음을 어떻게 떼는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그림이 있다. 한 화가는 자기 내면의 오색 풍경을 벽에다 옮겨 놓은 데 반해, 다른 한 화가는 텅 빈 자기내면을 드러내듯 벽을 닦고 또 닦아 무색으로 만든다. 영성은 구름 걷힌 뒤

의 순수하고 깨끗한 하늘처럼 무색투명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말의 뿌리를 캐어보면, <닦음>이란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다 크고 높고 밝게 되는 일>이라고 한다. 요컨대 닦음이란 스스로가 스스로를 고쳐 바로잡음으로써 새로운 나를 만드는 일인 바, 그것은 곧 주체적인 자아 혁명이라 할 수 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했는데, 이는 우리의 내면을 무색투명하게 닦음으로써 거기에 비친 <처음>, 곧 하느님을 본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마주본다고 생각하지만
있는 것은 다만 바라봄 뿐.
이 세상이 떠돌면 저 세상을 떠돈다. 두 세상 모두
안으로 투명한 하늘 하나 있을 뿐.
여기는 교리(教理)도 없고 이단(異端)도 없다.

—루미, <앞에 아무 것도 없다>

우리는 잘못된 습성 때문에 사랑도 하느님도 자꾸 대상화하려 하지만, 루미에 의하면 사랑이나 하느님은 대상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있는 것은 다만 바라봄 뿐.>

우리가 하느님을 아는 길은 <눈뜸>만이 필요할 뿐이라는 것이다. 현세와 내세를 말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닦고 또 닦아 우리의 내면을 <투명한 하늘>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방황하지 않는 온전한 방편이라는 것이다.

같은 시의 이런 표현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예수의 기적은 그 사람 자신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과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흔히 우리는 예수가 베푼 기적을 예수와 갈라서 생각한다. 행위와 행위자의 분열, 곧 존재의 분열이다. 예수의 기적뿐 아니라 예수가 부른 찬미와 기도와 사랑은 예수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예수가 부른 찬미는 그분이 자신을 땅별에 내신 이와의 일체감에서 터져나온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표현일 뿐이다. 그분이 올린 기도와 사랑은 그분의 존재 자체의 가식 없는 드러남일 뿐이다.

예수가 가장 미워한 것은 존재의 이중성이다. 겉과 속의 다름, 바리새적 위선을 예수는 증오했다. 질병 가운데 가장 치유하기 어려운 질병이다. (고진하, 『나무 신부님과 누에 성자』 중에서)

▣ 마/음/으/로/읽/는/글

저무는 꽃잎

가장 화려하게 피었을 때
그리하여 이제는 저무는 일만 남았을 때

추하지 않게 지는 일을
준비하는 꽃은 오히려 고요하다

화려한 빛깔과 향기를
다만 며칠이라도 더 붙들어두기 위해
조바심이 나서
머리채를 흔드는 꽃들도 많지만

아름다움 조금씩 저무는 날들이
생에 있어서는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아름다운 날에 대한 욕심 접는 만큼
꽃맺이 한치씩 커오른다는 걸
아는 꽃들의 자태는 세월 앞에 오히려 담백하다

떨어진 꽃잎 하나
가만히 볼에 대어보는
봄날 오후
(도종환)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춘려 김종훈 안경숙 박창운 허정윤 김용진 박효선 김준호 곽혜자 이한림 김명희 박애순 정완수 김재광 김정길 최숙화 이봉옥 최종원 김혜권 박영희 김철수 박옥순 박권동

월정헌금:

권혁순 박혜경 이지훈 조항범 오현정 최윤희 황원순 이용희 황자순 이갑재 전영자 정진경 무명1

감사헌금:

노정숙 한선희 오송경 김중수 이순정 김애경 박성수 김재광 김홍기 무명2

생일감사헌금:

김준호 박효선 한지희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교 회	조 순 덕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례	윤 정 덕	노 순 옥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곽 권 희	김 명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곽 혜 자	박 경 선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안 정 숙	조 병 주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백 묘 현	김 경 수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송 의 섭	박 효 선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최 희 정	최 숙 화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오 복 숙	이 순 정
빌 립 보	최 종 원	이 형 숙	이 명 희	박 현 우
가버나움	구 성 실	안 홍 숙	이 영 옥	구 명 자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김 희 우	백 혜 숙
갈라디아	송 양 진	유 경 순	유 경 순	김 혜 권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윤 정 화	박 미 영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최 영 혜	박 혜 경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교 회	교 회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은퇴감사 :** 오늘 예배는 박옥식 전도사님 은퇴감사예배를 겸하여 드립니다. 그간의 귀한 사역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후의 생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사순절** : 25일(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교회에서 마련한 사순절 묵상집과 달력을 통해 영적인 성숙을 도모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3. **겨울성경학교 :** 교회학교 유초등부가 27~28일 양일간 교회에서 겨울 성경학교를 엽니다.
4. **신앙강좌** : 다음 주일(29일) 오후집회는 금년도 첫 번째 신앙강좌로 모입니다. 강사는 현재 대한적십자사 총재이신 이윤구님이십니다.
5. **성경학당** : 3월 9일부터 12주 동안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존 웨슬리 목사의 '표준설교'를 함께 읽어갑니다.
   오전반 - 화요일 10시 30분
   저녁반 - 화요일 7시 30분
   참석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교재를 구입해야 합니다.
6. **신앙실천** : 가족들이 함께 사순절 저금통을 만들고 돕고 싶은 기관을 선정해 정성껏 실천하십시오.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